

KAIST에 탄생한 특별한 가족

서로 닮았지만 다른 우리, 가족이 됐어요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5월, KAIST 오리 연못에 특별한 동거를 시작한 가족이 탄생했다. 서로 닮은 듯 닮지 않은 오리와 거위들. 유기와 부상이라는 고난을 뛰어 넘어 가족이 된 그들은 공존과 회복의 상징으로 KAIST 구성원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고 있다. 오리와 거위의 특별한 동거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자.



거위 가족의 탄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거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연못으로 몰려들었다.

- ① 2024년 KAIST 캠퍼스에 유기된 오리들은 허원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캠퍼스의 한 가족이 됐다.
- ② 유기된 오리 중 한 마리는 어린이날 새끼를 품에 안으며 새 가족을 이뤘다.
- ③ 거위들 역시 오리와 비슷한 시기에 산란했고, 스승의 날 새끼 거위들이 부화했다.
- ④ 새끼 거위들이 어미없이 추위에 떠는 모습이 관찰됐다. 이에 사람들은 새끼들을 구조했다.
- ⑤ 구조된 새끼 거위들은 오리 가족과 함께 격리장에 살게 됐다.

고요한 연못에 깃든 따스한 기적들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 그리고 새끼 거위로 이뤄진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AIST 캠퍼스에선 어미 없이 유기된 오리 두 마리가 학생들의 제보로 구조됐다. 구조된 오리들은 캠퍼스의 터줏대감인 거위들과는 데면데면했지만, ‘거위 아빠’ 허원도 생명과학과 교수와 KAIST 시설팀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캠퍼스의 한 풍경으로 자리 잡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연못에 어둠이 드리웠다. 단팍처럼 붙어 지내던 오리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자취를 감췄고, 남은 오리는 상처를 입은 채 연못가에서 발견되었다. KAIST는 교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인위적 개입을 자제해 왔지만, 이때만큼은 예외였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다친 오리는 곧바로 격리장에서 보호받게 됐다.

그렇게 한 달간의 요양 끝에 오리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고, 5월 5일 어린이날 새끼 오리를 품에 안으며 새로운 가족을 이뤘다. 연이어 스승의 날에는 거위 가족의 알도 부화해 KAIST는 그 어느 해보다 생명력 넘치는 봄을 맞았다.

구조된 거위들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된 가족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연못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다. 천적의 공격 탓이었을까? 새끼 거위 두 마리가 어미 없이 추위에 떨며 발견된 것이다. 다행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변다현 학생의 발 빠른 구조 덕분에 새끼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깃털에 기름을 발라 줄 어미가 없었기에 스스로 물에 뜨거나 헤엄칠 수 없었다. 변 씨는 새끼들에게 어미의 보살핌이 필요한 만큼은 거위 무리와 합사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냉담했다. 성체 거위들은 헤엄을 치지 못하는 새끼 거위들을 외면한 것이다. 결국 변 씨와 허 교수, KAIST 관리팀은 새끼 거위가 성장할 때까지 격리장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그렇게 오리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된 거위들. 닳은 듯 닳지 않은 그들의 첫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다음 날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어미를 잃은 새끼 거위들과 한때 홀로 살아남은 오리가 어느새 다정함을 나누고 있던 것이다. 이들의 특별한 동거는 단지 귀엽고 따뜻한 장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기와 부상, 외면과 추위를 견뎌낸 작은 생명들이 만들어 낸 이 가족은 그 자체로 회복과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다름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KAIST가 꿈꾸는 미래 공동체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KAIST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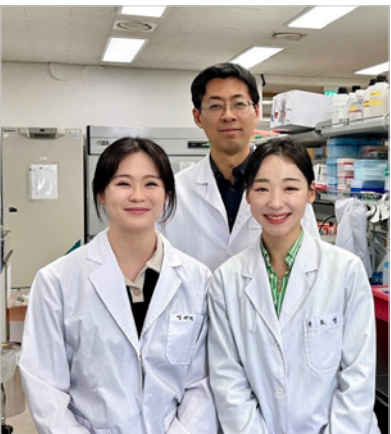
+ “처음으로 아이와 진짜 대화했어요” 자폐아동 위한 소통앱 개발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홍화정 교수팀은 네이버, 도닥 임 아동발달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해 AI 기반 도구 액세스톡(AACessTalk)을 개발했다. 이는 발화하지 않은 자폐 아동에게는 개인화된 여취를, 부모에게는 문맥 기간 대화 가이드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고, 부모는 본질적인 소통에 집중할 수 있어 양육 효능감이 높아졌다.

[» 더보기](#)

+ 음악 창작 돕는 작곡 AI 동료 ‘어뮤즈’ 공개

전기및전자공학부 이성주 교수 연구팀이 AI 기반 음악 창작 지원 시스템 어뮤즈(Amuse)를 개발했다. 어뮤즈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영감을 입력하면 이를 화성 구조로 변환해 작곡을 지원해주는 AI 기반 시스템이다. 기존의 생성 AI와 달리 사용자의 창작 흐름을 존중하며, AI의 제안을 유연하게 통합·수정할 수 있다. 이에 창의적 탐색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더보기](#)

+ 바이러스 면역반응 ‘켰다 켜다’ 단백질 스위치 발견

생명화학공학과 김유식 교수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차승희 교수 공동 연구팀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유래한 이중나선 RNA가 면역반응을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또한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슬러프(SLIRP)가 바이러스 감염과 자가면역질환 양쪽에서 ‘면역 스위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연구팀은 슬러프를 타겟으로 한 면역 균형 조절 전략이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 더보기](#)

+ 심리적 공포기억 조절 뇌 회로 최초 규명-트라우마 치료 새 전기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 연구팀은 감각적 고통 없이 심리적 위협만으로 유도되는 공포 기억의 형성을 조절하는 핵심 뇌 회로를 규명했다. 공포에 관한 기억은 심리적 요인과 연관성이 크지만, 이러한 심리적 위협을 처리하는 뇌 회로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다. 이에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정서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이 서로 다른 뇌 신경회로에 의해 처리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 더보기](#)

+ 2025 리서치데이 연구대상에 배현민교수, 대표 연구성과 발표

KAIST는 지난 4월 ‘2025년 KAIST 리서치데이(Research Day)’를 개최했다. 이는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최고의 영예인 ‘연구대상’은 배현민 교수(전기및전자공학부)가 수상했다. 배 교수는 수상을 기념해 ‘AI를 통한 정량적 의료 영상 초음파 장비 연구개발 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더보기](#)

+ 교육혁신의 날, 류석영 교수 ‘임형규 대상’ 수상·전액 기부

지난 20일, KAIST는 ‘2025 KAIST 교육혁신의 날’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교육 혁신에 기여한 교원을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학내외에 공유해 교육 혁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행사 영예의 대상은 전산학부 류석영 교수에게 수여됐다. 류 교수는 상금은 KAIST 구성원의 심신 건강을 위한 마인드케어위원회에 기부하며, 함께 정신건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더보기](#)

+ KAIST 임형규 동문, ‘I am a KAIST’잇는 챌린지에 1억원 기부

임형규 前 KAIST 동문회장이 교가·애국가 챌린지 경연 대회의 시상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교가·애국가 챌린지는 KAIST의 가치와 교육 이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애국심과 애교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4년 이광형 총장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기부금은 2026년 대회부터 시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KAIST 교육 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제21회 조정훈 학술상, 국방과학연구소 이연관 박사 선정

KAIST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제21회 KAIST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국방과학연구소 이연관 박사를 선정했다. 이 박사는 국방 분야에서 유도탄과 관련된 연구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 기술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국방 기술의 공개 제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논문을 등재했을 뿐 아니라,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다. KAIST는 이러한 이 박사의 성과를 높이 사, 이 상을 수여했다.

[» 더보기](#)

+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등 2025년 청렴주간 운영

‘KAIST는 5월 19일부터 한 주간을 ‘2025년 KAIST 청렴주간’으로 지정했다. 청렴주간 동안 학내 구성원의 청렴·반부패 의식을 높이며,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기간에는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청렴 골든벨, 청렴·반부패 교육 이수율의 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 캠페인 등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다.

[» 더보기](#)

+ 서울캠퍼스, 동전과 상상력의 충돌 〈빅 코인즈, Big Coins〉展 개최

KAIST는 산업디자인학과 지호준 겸임교수의 개인전 〈빅 코인즈, Big Coins〉를 내년 2월 말까지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수펙스 경영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교황 요한 23세가 새겨진 바티칸 동전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를 함께 배치한 작품 ‘프라이즈, Priced’를 비롯해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품은 KAIST 구성원은 물론 외부 관람객에게도 무료로 공개된다.

[» 더보기](#)

+ 전산학부 ‘크래프톤 빌딩’ 준공

KAIST 동문의 기부 행렬 끝에 전산학부 증축 건물이 건립됐다. 게임 회사 크래프톤의 기부를 기점으로 이어진 기부 행렬은 약 117억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KAIST는 마련된 재원을 활용해 6층 규모의 ‘크래프톤 에스오씨(KRAFTON SoC)’를 설립했다. 해당 공간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동문과 재학생, 교수진이 함께 만들어낸 KAIST 공동체 정신의 결정체임을 보여준다.

[» 더보기](#)

+ 2025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 개최 – 한·미 협력 모색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에서 ‘2025년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선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고조,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방향을 살폈다. 나아가 과학기술주권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미 간 기술혁신 강화 방안을 논했다. KAIST는 앞으로도 이같이 과학기술과 정책이 소통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 더보기](#)